

960-8,9,12

2018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 시험대비 국어 모의고사
전선혜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헛웃음을 웃다.
- ② 밥을 먹였다.
- ③ 산에 오른다.
- ④ 헛손질을 한다.

2.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검붉다, 부슬비
- ② 알아보다, 볶음밥
- ③ 그만두다, 작은집
- ④ 오르내리다, 날짐승

3. 고사성어와 속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累卵之危 - 흉년에 윤달, 마디에 옹이
- ② 亡羊補牢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③ 漁父之利 - 시앗 싸움에 요강 장수
- ④ 狐假虎威 - 말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간다

4. 다음 중 표준발음인 것은?

- ① 낮익다 [나딕따]
- ② 결막염 [결마검]
- ③ 색연필[생년필]
- ④ 등용문[등농문]

5.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
- ② 당신 좋을대로 하십시오.
-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④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어.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는 언제 어디나 어둠이 없는 대낮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구름·산·흙·바위·풀들의 색깔과 윤곽이 매우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자연은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이데아(idea)를 형상이라고 불렀던 철학은 이 풍토의 소산이다. 자연 환경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개척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에게 ‘자연적’이란 곧 ‘합리적’이란 뜻이 된다. 이성(logos)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들의 풍토에서는, 우주는 무엇인가 하나의 기확대로 움직이는 것이며 인간은 그 ‘하나’의 존재와 그 움직임까지도 알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했다. 결국 어느 선행 조건이 같다면 결과는 언제나 같다는 인과율을 신봉할 수 있었다.

반면 고대 중국인은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각대로만 일이 진행되지는 않음을 잘 알았다. 그래서 이성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인과는 대조적으로 ‘진인사이후천(盡人事以後天)’의 자세로, 다만 천(天)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천명(天命)·천자(天子)·천의(天意) 등의 낱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성을 믿고 그 본질을 구명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그 변화 양상을 찾는, 말하자면 변화 양상의 인식이 사색의 첫걸음이 되었다. 중국인의 철학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문제 삼았다. 그에 따라 중국인들은 삶에 대한 깊은 지혜가 넘치는 인간학을 만들게 되었다.

- ① 이데아 철학은 그리스 풍토의 소산이다.
- ②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다.
- ③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본질을 구명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그리스와 중국이 공통적이다.
- ④ 중국인들은 자연의 변화에 맞춰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7. 문장의 짜임새를 잘못 말한 것은?

- ① 서울과 부산이 매우 넓다. (겹문장)
- ② 그와 나는 심하게 다투었어. (겹문장)
- ③ 어제 순희는 길에서 우연히 영수와 만났다. (홀문장)
- ④ 나는 오늘 빵과 피자를 먹었어. (겹문장)

8. 다음 한자어의 독음이 바른 것은?

- ① 사태를 把握(진단)하고 수습해야 한다.
- ② 검찰은 偏頗(편향)적 수사를 중단하라.
- ③ 容愨(용납)을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 ④ 물자 공급의 圓滑(원활)을 기하기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

9. 문장부호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① 지금 즉시 대답해!
- ②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③ 이 글은 8.15 광복에 대한 내용이다.
- ④ 손(手)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10. 다음에서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수평, 수평아리, 새치름하다, 개구쟁이
- ② 주책맞다, 암태지, 윷도리, 윷총
- ③ 구절, 영판, 사글세, 솟쥐
- ④ 꼭둑각시, 실몽당이, 새양쥐, 애벌레

11. 다음 중 준말의 형태가 잘못된 것은?

- ① 팬찮아, 많이 거북지는 않아.
- ② 내가 익숙지 않아서 잘 못하겠어.
- ③ 그 정도의 실력자는 훈타.
- ④ 그렇잖아도 연락 한 번 하려고 했어.

12. 다음 중 세 자리 서술어는?

- ① 버스에서 엄마가 칭얼대는 아이에게 젓을 먹였다.
- ② 이곳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 ③ 오늘 아침에는 장미꽃이 유난히 붉다.
- ④ 동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했다.

13.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색한 문장이다. 가장 자연스럽게 고쳐 쓴 것은?

컴퓨터는 수와 기호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이상, 컴퓨터와 문학 연구 사이에는 아무런 친연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사실 컴퓨터는 문맥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말뜻이나 섬세한 감정의 그림자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우둔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문학 연구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착각일 듯도 하다. 하지만 문학 연구도 학문 활동인 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며 정리해야 할 필요가 많다. 자료 카드가 수십 장 혹은 수백 장일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자료 더미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① 컴퓨터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② 컴퓨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조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③ 컴퓨터는 언제 쓰느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④ 컴퓨터는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앞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14. 국어의 시대구분과 역사적 사건을 관련시킨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국통일로 신라어가 고대국어의 중심이 되었다.
- ② 고려가 건국되면서 언어 및 문화의 중심지가 바뀌었다.
- ③ 훈민정음 창제로 우리 민족은 고유한 언어를 갖게 되었다.
- ④ 임진왜란 전후의 음운 및 문법의 변화로 근대국어가가 성립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16]

유행이라는 현상은 일정한 시간 안에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되어 나와야 하는 시장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용 가치의 측면에서만 소비생활을 영위할 경우, 시장은 일정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새 상품을 위해 폐기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유행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유행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미적 가치의 재충전을 핵심으로 하여, 이전의 미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가’하는 관심에서 예술작품을 창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은 대중문화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 _____ 자동차에서 보듯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서 반짝이는 새것을 만들어 낼까 하는 ‘새것 찾는 놀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 철학 사상 연구회 ‘대중문화와 인간의 삶’-

15. 이 지문을 가지고 강연을 할 때, 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행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다.
- ② 유행은 일시적으로 상업적인 논리를 받아들인다.
- ③ 유행은 대중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미적가치를 받아들인다.
- ④ 오늘날의 유행은 예술의 창조를 통해 자체의 가치를 창출한다.

16. 위의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 ② 매년 모델이 바뀌는
- ③ 대중이 요구하는 유행에 민감한
- ④ 욕망의 또 다른 상징물인

17. 다음 중 언어의 기능면에 있어 '전달 의도'가 가장 강한 작품은?

- ①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훈 간 둘 훈 간에 청풍 훈 간 맞져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②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흄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③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맞지 안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 잡고 갖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④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미여든 네 눈 점 미어 주마.
올 길헤 쫓 따다가 주에 머겨 보자스라.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향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 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① 작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낙엽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 ② 고어 투의 문체로 다소 지루한 느낌을 주는 시이다.
- ③ 토속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망국의 한을 노래했다.
- ④ 도시적 삶의 비애감을 가을의 정취에 대입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19. 다음 글의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사회 복지 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낸 세금의 액수와 그 재화의 이용을 통한 이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 보험은 각출 원리를 적용해야만 가능한데, 저소득 계층은 보험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 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회 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공적 부조를 위해 보험금을 부담할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겨 둘 때보다 그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들에게 민간 부문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유가 주어질 때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만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줄어들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 ① (가)를 (나)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를 (나)에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③ (가)에 대해 (나)에서 반론과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④ (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에서 제시하고 있다.

20. 다음 글을 읽고, ㉠에 해당하는 수수께끼의 사례를 찾으시오?

우리 선인들의 말 겨루기 중 찾을 수 있는 ‘말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옛날에 언어는 중요한 놀이의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기나긴 겨울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라면 역시 말로 하는 놀이가 으뜸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말놀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수수께끼’이다. 수수께끼는 한자 말로는 ‘미어(謎語)’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글자를 가지고 하는 ‘파자(破字)놀이’같은 것도 있다.

수수께끼의 첫 번째 특징은 구연을 할 때 화자, 청자 쌍방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⑦두 번째 특징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쉽사리 알아맞힐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수께끼를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사고 능력이 훈련되고 창의력이 향상된다.

가령, “도마 밑에 검은 송충이는?”, “깜깜할수록 잘 보이는 것은?”과 같은 수수께끼는 ‘눈썹’과 ‘별’을 은유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몇 개?”, “하나”와 같이 비은유적인 것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일종의 퀴즈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수수께끼는 은유를 통해 대상을 정의한다.

- ①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 눈 깜짝할 새
- ② 내 것은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 이름
- ③ 배울 것 다 배우도 여전히 배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 배우
- ④ 머리에 빨간 꽃 한 송이를 피우고 눈물 흘리는 것은? - 촛불

[정답 및 해설]

1. ④

<정답 해설>

헛/손/질/을/ 하/ㄴ/다. (7개)

<오답 해설>

- ① 헛/웃/음/을/ 웃/다 (6개)
- ② 밥/을/ 먹/이/였/다 (6개)
- ③ 산/에/ 오르/ㄴ/다. (5개)

2. ①

<정답 해설>

검/붉다(용언의 어간+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부슬/비(부사+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 해설>

- ② 알아/보다(용언+용언: 통사적 합성어), 볶음/밥(명사+명사: 통사적 합성어)
- ③ 그만/두다(부사+용언: 통사적 합성어), 작은/집(용언의 관형형+체언: 통사적 합성어)
- ④ 오르/내리다(용언의 어간+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날/짐승(용언의 관형형+체언: 통사적 합성어)

3. ①

<정답 해설>

- 累卵之危(누란지위):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
- 흉년에 윤달, 마디에 옹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에 또 좋지 못한 일이 겹쳐 일어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해설>

- ② • 亡羊補牢(망양보뢰):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③ • 漁父之利(어부지리):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
 - 시앗 싸움에 요강 장수: 두 사람의 싸움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됨.
- ④ • 狐假虎威(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말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간다: 남의 세력에 의지하여 기운을 편다는 말.

4. ③

<정답 해설>

‘색연필’은 ‘ㄴ’첨가와 자음동화에 의해 [생년필]로 발음한다.

<오답 해설>

- ① 낮익다 [나딕따] → ‘ㄴ’첨가 [난딕따]
- ② 결막염 [결마검] → ‘ㄴ’첨가 [결망념]
- ④ 등용문[등농문] → ‘ㄴ’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등용문]

5. ①

<오답 해설>

- ② 당신 좋을대로 하십시오. → 좋을√대로(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검토한바(뒤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상황을 앞에 제시하는 경우에 ‘바’는 연결 어미이다. 이 경우 ‘바’는 흔히 ‘-했는데’, ‘-했으니’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도 ‘서류를 검토 했는데’로 해석된다.)
- ④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어. → 읽는√데(‘데’의 뒤에 조사 ‘에’가 결합되는 것이 가능하면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 읽는 데에’로 해석되므로 띄어 쓴다.)

6. ③

<정답 해설>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본질을 구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리스의 관점이다.

7. ②

<정답 해설>

‘그와’는 주어인 ‘나’의 다툼의 상대방이므로 필수부사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존재하는 홑문장이다.

8. ④

<정답 해설>

圓滑 둥글(원) 미끄러울(활): 「1」모난 데가 없고 원만함. 「2」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

<오답 해설>

① 把握(진단) → 잡을(파) 절(약): 「1」손으로 잡아 줌. 「2」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② 偏頗(편향) → 치우칠(편) 자못(파):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

③ 容恕(용납) → 얼굴(용) 용서할(서):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

9. ④

<정답 해설>

손(手)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오답 해설>

① 지금 즉시 대답해!

② 달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③ 이 글은 8.15 광복에 대한 내용이다.

10. ①

<오답 해설>

② 윗층 → 위층

③ 영판 → 아주

④ 꼭두각시 → 꼭두각시, 새양쥐 → 생쥐

11. ④

<정답 해설>

그렇잖아도 → ‘그렇지 않아도’의 준말이므로 ‘그렇잖아도’로 쓴다.

12. ①

<정답 해설>

버스에서 엄마가 칭얼대는 아이에게 젓을 먹였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먹이다: 세 자리)

<오답 해설>

- ② 이곳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무엇이 어디에 적합하다: 두 자리)
- ③ 오늘 아침에는 장미꽃이 유난히 붉다. (무엇이 붉다: 한 자리)
- ④ 동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했다. (누가 누구를 칭찬하다: 두 자리)

13. ②

<정답 해설>

제시문의 내용은 ‘문학 활동을 할 때, 컴퓨터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일을 행하지는 못해도 도움을 주는 ‘조수’라는 표현이 컴퓨터에 가장 적합하다.

14. ③

<정답 해설>

훈민정음 창제로 우리 민족은 고유한 ‘문자’를 갖게 되었다.

15. ④

<정답 해설>

계속해서 새 것을 만들어 팔아야 경제적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해 대중의 요구에 맞는 새 물건들이 만들어 지면서 유행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결국 유행이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위해 그들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행은 창조적이고 생명력 있는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16. ②

<정답 해설>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바뀌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② ‘매년 모델이 바뀌는’이 가장 적합하다.

17. ④

<정답 해설>

‘전달 의도’가 강한 것은 교훈을 주는 경우이다. ‘오늘도 다 새거다~’는 부지런함에 대한 권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교훈적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였다.

- ① ‘십년을 경영하여~’는 자연 친화적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 ②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는 답답한 심정을 풀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③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는 매화를 보고 감상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18. ④

<정답 해설>

모더니즘 시인 김광균의 '추일서정'은 도시의 지식인이 어느 가을날에 느끼는 비애감을 노래한 시이다.

19. ③

<정답 해설>

(가)는 사회 복지 정책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몫까지 강제로 많이 낸 사람들(부유층)이 오히려 사회 복지에 대한 이득을 적게 보게 될 경우(부유층이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재화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본으로 선택한 재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나)는 세금을 적게 냈든 많이 냈든 모두에게 똑같은 사회 복지 재화를 강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부유층도 사회 복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들만을 이용하게 하면), 재화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줄어들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의 양과 질은 높아지게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 ④

<정답 해설>

가장 은유적(비유적)인 수수께끼를 찾으려면 된다. ①, ②, ③은 '비유'라기보다는 '난센스 퀴즈'에 가깝다.